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맡겨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네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는 법도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6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1월 21일 (토) 제 1906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크리스천답게 정치하라!

처치리더스컴, 제임스에머리 화이트 목사가 말해주는 정치적 크리스천의 의미/행동 소개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자라면 정치 활동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문화'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는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세계 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경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정치 참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James Emery White,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4번째 총장으로 섬겼으며, 신학과 문화 교수로 재직 중) 목사는 진보와 보수라는 양극단으로 갈라진 미국 사회에서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는 성경적으로 온전할 때, 세상과는 결이 다른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On Being a Political Christian).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 수훈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다(마 5:13-16). 빛과 소금은 여러 중요한 의미의 비유이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 소금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과 향을 구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식이 썩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생선이나 고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먹기 보다는 그 전에 거기에 소금을 칠 것이다. 소금은 고기가 썩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소금과 같은 역할로서 존재해야 하며, 소금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진리를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빛은 곧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 소금은 무엇

에 대해 대항하고 막아내는 부정적 이미지의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빛은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게 하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의미를 갖는다. 즉, 우리는 소금으로써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 문화적 침식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진리가 선포되고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에 대해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존 스토틀(John Stott)'는 "고기를 소금에 절이지 않고서 고기가 상했다며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비난이다.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소금은 어디에 있는가?'이다"라고 말했다. 존 스토틀의 이러한 질문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와 관련이 있다. 나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참여나 선거 투표에 참여하고 신경 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음, 어떤 것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그냥 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수동적인 시민 활동이자, 치명적인 결점인 운명론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말에는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없다. 이처럼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내가 아는 한에 있어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임법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투표 활동에 정치적인 사명을 추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인 것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치적인 시민'이 될 수 있을까? (2면으로 계속)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영혼 훈련의 찬양이다!

TGC, 작곡 250주년 맞아 우리가 잘 모르는 8가지 사실 소개

"극심한 불행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찾는 노래가 바로 이것이다.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다"

1773년 1월 1일, 250년 전 새해 첫날, 잉글랜드 소음 올니(Olney)의 한 교회에서 최초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불렀다.

곧장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점차 이 찬송은 아메리카에서 교파를 넘어 모든 교회로 널리 퍼져나갔다. 이 찬송은 서부 개척자들에게는 부흥 성가, 흑인 교회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영가, 그리고 20세기에는 찬송가의 표준이 되었다. 그다음에는 1947년에는 머헤리어 잭슨(Mahalia Jackson)이, 그리고 1970년에는 주디 콜린스(Judy Collins)가 음반으로 내는 등 라디오 시대와 함께 음반 시장으로 확대되었다.

그 이래로 이 찬송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인지도 높은 찬송이 되었다. 그리고 이 찬송은 널리 퍼져나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깊숙이 파고 들기도 했다. 극심한 불행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찾는 노래가 바로 이것이다.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다.

그렇지만, 다들 익숙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적지 않다(250 Years Ago Today: John Newton's 'Amazing Grace' First Sung: 8 Things You Probably Didn't Know About the Evangelical Hymn).

(3면으로 계속)



시론 3면
민경엽 목사



푸른초장 4면
신동기 목사



교회사연구소 13면
조용중 선교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가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Sharing Bread for Soul 월드쉐어USA
SBS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본부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2023 HAPPY NEW YEAR
신년 축복 성회
Uniting with the **NEXT GENERATION** unto the ends of the earth
다음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2023. 1. 26(목)~29(주일)
목(7:30pm), 금(5:30am, 7:30pm)
토요일(6:00am, 7:30pm), 주일(1부~4부)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강사: 조지훈 목사(조이플교회 담임)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발행인 칼럼

담대한 신앙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교회에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질병에서 낫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고난이 다른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매의 부모와 우리 부부의 눈시울이 모두 뜨거워졌다. 그 자매는 5년 전에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그리고 힘든 치유 과정 끝에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큰 병원의 행정부에서 근무하는 자매는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누군가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자기 업무를 잘하는 것은 물론이다. 자기만의 시간까지 내어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찾아보고 늘 살핀다. 교회에서 교사로서도 열심히 섬긴다. 그런 자매가 지난 12월에 자궁암이 재발 되었다는 소식을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고 얼마 전 부모와 우리 부부에게 알려준 것이다. 자매로서 재발 소식을 감추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자신의 상황을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난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데 쓰임 받도록 특별히 부탁한 것이다. 담대한 신앙이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는 기도를 일삼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또 다른 자매의 담대한 신앙 이야기이다. 얼굴에 살짝 수심(愁心)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중한 실력으로 정성을 다해 새벽예배 반주를 잘 섬기니까 그 자매에게 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지나고 했다. 그는 자기 반주만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말씀을 듣는 태도며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잘 보여주곤 했다. 얼마 전 그 자매가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 일 년에 한두 번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그런 일은 드물었다. ‘아픈가’ 나도 궁금했고 전도사님들도 궁금해했다. 그날 오후 전도사님 두 분이 그 자매를 만나러 갔다. 왜 안 나왔느냐고 물어도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다음 날 그 자매를 내가 만났다. 그때 알게 되었다. 그 자매가 얼굴에 수심이 깃들었던 이유를.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반주를 정성으로 섬긴 이유를. 그 자매는 팬데믹 훨씬 전에 새벽 반주를 시작했다. 그런데 처음 새벽예배 반주를 부탁받을 때 그 부탁한 사람이 교회가 자기를 써 줄 것이라는 생각만, 반주는 해보시라는 듯이 말했다는 것이다. 대화 중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몇 년을 지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런데 불현듯 마음속에 그 자매의 오해에 확신(?)을 준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부서, 모든 사역은 매년 임명하였는데 새벽 반주자는 따로 임명하지 않고 편하게(?) 생각하며 이제껏 지낸 것이다.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에게(담임목사인 내가 맨 먼저 포함되리라) 인정받지 못했어도(크나큰 오해였다) 하나님의 일이 나가 매일 새벽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담대한 신앙이다. 역시 부끄러웠다. 수년 동안 힘들어한 성도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부끄러움도 있고, 나는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 같아 부끄러웠다.

로마서 16장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모두가 바울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내가 겐 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뱌비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예나 지금이나 자매들이 담대한 신앙을 보여 준다. 2023년, 나도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

팬데믹 부수 효과, 최고 갑부들만 누렸다!

WIL,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 통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균형 현실 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최고 갑부들이 소유한 부는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The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presents the most up-to-date &

complete data on inequality worldwide: global wealth ecological inequality income).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 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지난 7일, 소득, 부, 성별,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 경제적 불균형을 연구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약 1억 명의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에 빠졌다.

현재 상위 소득 10%는 전 세계 소득의 52%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위 50%는 8%에 불과하다.

1995년 이후 억만장자의 재산은 1%에서 3%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증가세는 더욱 심해졌다. 2020년은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 점유율이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해”였다고 밝혔다.

세계 상위 1%는 1995년 이후 축적된 부의 3분의 1 이상을 가져간 반면, 하위 50%에

게는 2%만 주어졌다.

루카스 쉐슬 WIL 공동 소장은 AFP 통신에 “코로나19가 18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세계는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억만장자들의 부는 3조6000억 유로 이상 증가했지만, 1억 명은 극빈층 대열에 합류했다”고 했다.

극빈층이 지난 25년 동안 감소해왔던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연구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2명의 경우, 지난 25년 동안 매년 9.2%씩 부의 가치가 증가했다는 부분도 주목했다. 이는 다른 집단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전 세계 노동 소득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미만이었다. 1990년 약 30%였던 수치에 비하면 높아졌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낮았다.



부자세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분배가 가장 평등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소득의 36%를 차지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가장 불평등했는데, 상위 10%가 소득의 58%를 차지하고 있었다.

팬데믹 기간, 빈곤에 늘어 빠지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부유한 국가들의 개입은 필수적이었다.

보고서는 가난한 나라들이 소득을 부양하고 일자리를 구할 재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부를 재분배할 “전 세계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누진적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탈세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WIL 보고서는 “막대한 부의 집중을 고려할 때 적당한 누진세는 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크리스천에게 정해라

(1면에서 계속)

여기에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3가지 혁신적인 것들이 있다. (다음에 올 내용은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며 쓴 것이다. 각 나라의 상황과 문화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들이다.)

1. 정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대부분 공화당(Republican)에도, 민주당(Democratic)에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안 된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존재해야

하고, 공화당원 혹은 민주당원이 되는 것은 그다음 이야기일 뿐이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정치적으로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라는 것에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사회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아마도 우리는 진보주의적인 것에는 매우 보수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매우 진보적인 것에는 반대로 보수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생명의 신비함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부터 분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우리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지만, 어떤 당이나 이념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정치적 당파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쪽 진영이 더 옳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또 반대쪽 진영이 더 옳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다른 논지의 이슈에 대해서는, 두 진영이 틀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것이다.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에서 더 나아가,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한 정당을 따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절대 그 정당의 의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정당들을 넘어서 존재해야 하며, 거기가 어디든 간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길 원하고, 들길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눈을 가리거나 귀를 막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치적인 입장에(political party) 반대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우리는 어떤 주(또는 국가)에 주인이거나 하인이 아닌, ‘양심’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2. 우리는 ‘두 가지의 악들(Evils)’ 중에 그나마 덜 악한 것에 투표하는 것뿐이다.

어떤 정책이 정치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어떤 후보의 정책이나 성향에 대해서 매력적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투표를 하는 게 좋을까? 종종 사람들은 “악한 것들 중에 그나마 덜 악한 것에”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최근 선거를 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3면으로 계속)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상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2023 제9차 오렌지카운티 기관 및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Prayer Breakfast 2023년 1월 21일 (토) 오전 7시20분 은혜한인교회 친교실 2층 초대 말씀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오렌지카운티 지역 모든 기관 및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기관 소개와 함께 연합 기도 시간을 갖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디 오셔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미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의 후원에 동참을 원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알려주십시오. 문의: OC교협 심상은목사 (714)722-4805 온라인 등록: 구글 다크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YrXuh94rB_JzwsYt-vKhyEUJ4uNXIORG1qUBN4huEug/edit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읽고 있는 '책'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학교 도서관에 배치된 책들 중, 10세 소년들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Lawn Boy"란 보이라는 소설을 쓴 조나단 에비슨(Jonathan Evison) 작가는 자신이 쓴 란보이라는 책이 학생들 학교 도서관에 비치될 의도는 절대로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 도서관에 배치된 책들이 어린 소년들의 성관계뿐 아니라 소아 성애자를 정상적으로 보도록 미혹하는 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지향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지요.

란보이나 이런 책들의 내용 전개는 주로 어린 남성과 어린 남자아이의 "로맨스"로 만들어가지만, 결국 어린 소년에게는 육체적 강간과 엄청난 정신적 학대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설 자체를 어른의 눈으로만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린 심대 소년들끼리의 성관계까지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립 학교에서 매우 비윤리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성교육"을 통해 이미 잘못된 성관계를 배운 학생들에게는 이런 책들을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보면서 마치 "확인 confirmation"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악한 학부모들 그리고 그들의 강력한 저항이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런 책들을 자녀들이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책들의 내용들은 "소아 성애"를 성적으로 매우 그래픽하고 끔찍한 묘사들과 장면들을 다룬 책으로서 절대로 자녀들이 보게 하면 안 된다고 학교에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가보니, 학교 도서관에서 아직도 버젓이 발견되자,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들이 "소아성애"를 정상화하게 시키려는 현 바이든 정부의 "소아성애 정상화" 정치적 정책을 학교 안까지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미디어를 통해 알리며 미국 전역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도 당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주들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밝혀지면서 지금까지 12개의 주들은 이런 책들을 금지시켰습니다.

2021년 11월에 버지니아에서는 부모님들의 항의로 인해 사라졌던 책들 중, "란 보이"와 "젠더 쿼어"라는 책들이 어린 심대 소년과 남자 성인과의 성



위 사진의 브랜디 버크먼(Brandi Burkman, 43)은 2021년 9월 텍사스에서 열린 학교 이사회에서 '이런 책으로 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초등 학교 4학년 간의 성행위를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아성애자"이고 우리의 자녀를 세뇌시키고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다'고 학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행위 사진을 포함한 책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신 나간 학군 위원회에서 이 책들이 고등학생들이 읽기에 적합하다고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들을 다시 도서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한 아버지는 학교 위원회와 학부모 모임에서, 학교 도서관에 있는 3권의 책을 가져와 자녀들이 읽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하며, 얼마나 부적절한지 한번 읽어보겠으니, 들어보라고 한순간,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가 책을 읽지 못하게 마이크를 꺼버린 것이었습니다. 위원회가 무례하게 마이크를 끈 것에 대한 이유를 요구하자, 위원회는 그 아버지가 읽는 내용들이 방송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거 같아서 꺼졌다고, 잠으로 기가 막힌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학교 도서관에 배치한 책들이면서 아이들이 들을까봐 마이크를 꺼했다는 말이 안됩니다.

그 외 또 다른 책들은 사라 J. 마스(Sarah J. Maas)의 'A Court of Silver Flames' 은빛 불꽃의 범정과 엘렌 홉킨스(Ellen Hopkins)의 '트라이앵글스 Triangles'입니다.

세 권의 책 모두 본질적으로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다양한 성적인 만남에 대한 생생한 세부 사항과 그래픽들을 담고 있습니다. No Left Turn in Education 의 플로리다 지부의 회장인 브루스 프리드먼(Bruce Friedma)은 이 책들은 절대로 심대 학생들에게 부적합하다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 외에도 걸로는 어린 이 책같이

만, 내용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 책들이 학교 도서관 안에 들어온지 이미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Deep Blue States들 안에 있는 주들은 더욱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책들은 어떤가요?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왔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와 동역하는 학부모가 자기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내용을 먼저 확인했는데 별 특별하게 성적인 내용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책 속 부모의 사진이 둘 다 남자인 것을 확인하고 너무 놀랐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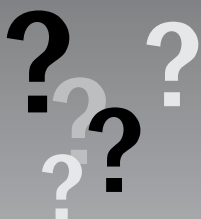
교묘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세뇌시키는 이런 방법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책 하나하나마다 정말 조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하였습니다.

이 책들 외에 보지 말아야 할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봐야 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2023년에는 저희 Tvnext.org 홈페이지에 자주 들려주셔서 올바른 정보를 꼭 받아보시고, 자녀들 교육과 특별히 그들을 위한 resources 들도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읽지 말아야 할 책들, 읽어야 할 책들 리스트도 곧 올릴 것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성경을 읽다가 약간 모순되는 듯이 보여 질문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삼하 24: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역대하 21:1절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두 구절은 모순되어 혼란을 줍니다. 목사님의 바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인랜드에서 이권사

**"인구조사 다윗이 심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단의 행동 잠시 허용"**

A: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믿지 않는 학파인 신정통주의의 바로우스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것은 동일한 성경에서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단정 짓는데 그것은 오해한 것입니다. 지적인 것과 같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삼하 24:1절에도 있고 역대하 21:1절에도 있습니다. 삼하 2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하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고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하여 다윗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1:1절에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다윗의 인구조사가 사단으로 말미암은 듯합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자인 바로우스는 이 두 가지가 상호 모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을 조심스럽게 잘 연구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하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하는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결단코 범죄하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하 21:1절의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성령으로 감동해 그 행동을 하게 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군대 수를 의지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잘못된 일이지만 다윗이 그것을 심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욕을 시험하려는 사단의 청원을 허용하심으로 욕이 당한 시련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말할 수 있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역대하 21:1절의 말씀이 풀립니다. 곧 다윗으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직접적으로 충동한 자는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것을 알 때 성경의 난제들이 풀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단의 행동을 잠시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동일한 사건을 취급한 두 본문에서 서로 모순된 듯한 기록에 대해서 크게 문제로 삼을 것이 없습니다.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지역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3년 6월 30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마귀정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이사야 52:13 - 53:12
- 2. 신약주해: 히브리서 10:19 - 25
- 3. 논문주해: 포스트 펜데믹의 개혁주의 교회론을 논하라 - 메타버스와 성찬
- 4. 설교본문: 구약 - 아모스 8:11 - 14, 신약 - 딤후 4: 1 - 5
-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손기성구약주해.pdf)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3년 3월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회 총회기간(5월23일 - 26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3년 5월 22일(월) - 23일(화)
장소: 퀸즈장로교회 (부총회장 김성국 목사 사무)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3년 6월30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박희근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2,23일)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명할 수 있음.
 -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주소: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전화: 917-254-0887 / 이메일 heepark91@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663927@gmail.com
고시부 서기: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홍희표 목사
서기: 안병권 목사
고시부부장: 손기성 목사
고시부서기: 박희근 목사

VI. 인간론 (4)

J. 아담의 죄와 우리들과의 관계

A) 관계를 부인하는 주장들

1) 펠라기우스 주의 (Pelagianism):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아담과 후손들과의 관계성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아담이 범한 죄는 자신의 죄이며 후손들과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아담이 후손들에게 보여준 죄악된 행동 때문에 후손들이 그 죄악된 행동들을 모방했다고 한다. 이러한 펠라기우스 주의는 종교 개혁시대의 알미니안 주의와 비슷하다.

2) 반펠라기우스주의 (Semipelagian)자들도 아담의 죄와 우리들과의 관계를 부인한다.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어거스틴의 원죄론과 은총론에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혼합시켰다.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한 상태는 아니며, 인간에게는 구원을 향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능력있는 존재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짐으로써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쳤다.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완성에 이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종교 개혁시대에 나타난 알미니안 주의와 비슷하다.

3) 뉴잉글랜드신학(New England theology, New Haven Theology) 뉴잉글랜드 지역의 회중 교회 가운데서 성장한 신학이다. 이 신학은 신신학(New Theology) 또는 사무엘 흙킨스의 이름을 따서 흙킨스주의라고도 불린다. 흙킨스를 비롯해서 조셉 벨라미와 나다니엘 테일러, 에드워드 주니어도 이에 속한다. 예일 신학을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뉴헤이븐 신학'으로도 불리운다.

뉴잉글랜드 신학은 조나단 에드워즈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르침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그들의 신학은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과는 크게 다르다. 이 신학에는 칼빈주의의 교리를 따르지만, 대각성(운동)을 거친 후 순수한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에서 벗어나서 도덕주의(Moralism)가 그들의 설교의 중심이 되었다. 이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을 재구성하여, 상당히 알미니안 주의와 타협적이면서 관대한 칼빈주의를 만들었다. 그 결과 아담의 죄의 죄책 (guilt)이 후손들의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부인했다.

이들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성(tendency)을 타고 태어났고, 그러므로 항상 그릇된 방향으로 선택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이 죄라고 칭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죄는 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야 하기 때문이다(conscious and intentional transgression of the law).

4) 실존주의자들은 인류의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강조하지만, 아담으로부터의 죄의 전가는 부정한다. 칼 바르트를 비롯한 실존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죄를 신화적으로

로 아담의 후손들도 동시에 그 범죄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인류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

3) 간접 전가론 (mediate imputation)

아담의 범죄의 죄책 (guilt)이 직접 후손들에게 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의 부패성(corrupt)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죄의 전가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직접적인 전가

할 속에서 범하는 일반적인 죄를 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는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들까지 포함)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Πάντες ἥμαρτον, all sinned)"는 부정 과거 직설법 동사 (The aorist indicative verb ἥμαρτον)로서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건을 지칭한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아직 태어

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죄인으로 간주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죄인으로 간주되어졌다.

아담은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로서 범죄했고, 우리에게 아담과 동일한 죄책이 주어졌다. 성경은 아담의 죄가 곧 우리의 죄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시 51: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어머니의 죄가 아니다. 시 51편 전체를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이 말은 어머니의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윗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된다.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14)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2) 자범죄 (Actual Sin)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원죄개념을 최소화 시키고, 자범죄를 강조한다. 그러나 자범죄의 근본은 원죄에 있다.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외적인 죄악된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마음의 계획을 포함한다. 자범죄는 개인이 행하는 죄인데, 이러한 죄는 모두 원죄로부터 흘러나온다.

소요리 문답 18문: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가지는 죄성(罪性)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답)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가지는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罪責)과 원의(原義)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보통 원죄(原罪)라 칭하며, 아울러 이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自犯罪)를 말합니다."

19문: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 모든 인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과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된 것과 그로 인해 금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다만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시로,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KHL0206@gmail.com

로 보며, 아담도 신화적 인물로 본다.

B) 관계를 인정하는 주장들

1) 실재론 (The realistic Theory)

어거스틴이 주장했다. 이 이론은 신비론이라고도 한다. 이 이론은 모든 인류가 개체화되지 않은 동일체로 아담 안에 전체적인 단일체 (one general human nature) 로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뿐 아니라 그 안에 동일체로 존재했던 모든 인류도 동시에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고 주장한다. 히 7:9-10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가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십의 일을 바쳤다고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자들로서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 행위 언약론 (Covenant of Works)

원죄와 자범죄 (Original and Actual Sin)

아니라, 부모로부터 출생을 통해 죄의 부패성이 물려받게 되었다.

(결론)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직접 전가(imputation) 되었으며, 행위 언약론이 가장 성경적인 것으로 믿는다.

K. 원죄와 자범죄 (Original and Actual Sin)

1) 원죄 (Original Sin)

원죄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어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악된 상태 속에서 태어난다는 교리이다. 원죄는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직접 전가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원죄는 아담의 죄를 부모를 통해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직접 전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오염시키는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원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거스틴이 원죄의 교리를 확립하였다.

원죄에는 죄책 (original guilt) 과 오염 (original pollution)이 존재한다. 롬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사람들이 생

나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이미 아담의 죄에 동참 했음 (과거의 완성된 행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 했을 때에 이미 모든 인류도 범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롬 5:13-14,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바울은 이 본문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성문화된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의 죄가 율법을 어긴 행위가 아담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죽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셨다.

롬 5:18-19, "그러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죄인이 되었다" (ἄμαρτωλοι κατεστάθησαν, sinners were made) 부정 과거 직설법 (aorist indicative) 사용함으로 이미 과거에 끝난 행위를 의미한다. 아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Los Angeles, San Francisco, and Toronto.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3)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1장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드리는 경고 (3)

3) 현재의 비참한 영적인 상황

(1) 왜 세상적인 일에 그토록 몰두하는가?

우리 백성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장소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들에 몰두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며, 거룩함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의 가족들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한다고 해도 마음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대신에, 마음에도 없고 생기도 없는 몇 마디 말로 때우고 만다. 또한 자녀들은 세례를 받을 때 거짓으로 약속하기를 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받지 못한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사역자들에게 묻는 가족들이 얼마나 적은가! 또한 간절히 영생을 구하며, 기꺼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적은가! 그들은 조만간 자신들을 죽일 죄악들에 대항하기보다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교회와 사역자들에 대항할 것이다. 죄가 이들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었고, 이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었다. 바로 이와 같은 빛과 은혜의 날들에 그들이 빛과 은혜의 완고한 원수들이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보며 자신들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2) 더 이상 늦기 전에, 이 은혜의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어리석고 비참한 영혼들이여(갈 3:1)!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미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 죽은 것에 빼앗겨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치명적인 원수가 되어 고집스럽게 계속 멸망으로 나아가며, 여러분이 구제불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설득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며, 여러분의 손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을 막지 못하도록 하려는가? 하나님의 인내는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비로운 목소리로 부르고 계시는 동안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4)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무관심하다는 무신론자들의 반대에 대한 답변

* 나는 무신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다.

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가를? 당신의 지성은 하나님과 내세의 삶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것을 알게 해준다.

② 완전하신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며 편재하시며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왜 믿지 않는가?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을 나누어 줄 수 없다. 마치 하나님께서 유한하시며, 편재하지 않으시며 불충분한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마음과 생활에 아무 관심도 없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천박하고 불경한 생각이다.

③ 사람의 몸과 마음에 큰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이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또는 당신이 죽거나 살거나 간에 당신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생명과 건강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당신은 당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당신은 감히 하나님께 '나는 당신을 의지하지 않을 것임니다'라고 말하려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눈먼 무신론자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신 자신을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이다.

④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믿는가? 만일 믿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정부는 있을 수 없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리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통치자로 만드는 것이 되겠는가?

⑤ 자연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삶의 법칙들을 만드셨는가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에 대해 무관심하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격하게 죄짓는 것을 금하시겠는가? 자연법칙에는 거짓이 없다. 이런 자연법칙을 가지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다.

⑥ 인간을 섬기도록 세상 만물을 만드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종이 되도록 하셨는가를?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 별들과 땅 등 모든 피조물이 우리에게 시종하며, 그들의 생명과 속성들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⑦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삶의 체계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왜 아들을 보내셨는가를? 진정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성별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이다(딤후 2:14).

⑧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무관심하시다면

왜 그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만일 진정 그러하다면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명령해서 사람들에게 날마다 회개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거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⑨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면, 왜 심판을 예고하시는가?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세상을 지옥이나 혹은 아주 많은 두려운 심판관을 통해 벌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⑩ 성령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한지 불결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다면 왜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가? 당신은 성령님께서 불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가?

⑪ 거룩하시기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심지어 유혹자의 악한 의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가? 만일 어떤 배교자가 실제로 마법사나 마녀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해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로 끌어내리고 애쓰고 있는, 비참하고 악독한 영들이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해보라. 만일 그가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그에게 제시하겠겠다.

⑫ 사람의 일에 큰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 아직까지 당신은 무소부재하시며, 만물을 보존하시며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또는 사람들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younsklee@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행복한 부자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일컫는다.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행복한 삶에 대한 소망 때문일 것이다. 돈이 많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모든 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부호들의 자살 소식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던 돈에 대한 환상은 오히려 인간들의 삶을 더 많은 근심과 고통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 돈 문제만큼 실질적인 것도 없는 것 같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돈에 묶여 있는 많은 사람을 본다. SNS를 통해 부를 거머쥔 사람들의 정보를 듣고 익히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움켜쥌 수 있는지에 집착하지만 정작 인간의 생사 회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시간 투자는 아까워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돈만 사랑하며 추구하는 것이 문제이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딤후 6:10)라고 말한다.

개혁주의 목사이자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엘 비키(Joel Beeke)는 세속주의를 이렇게 정의한다. "세속적인 사람들의 목표는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수직적으로 사는 것보다 수평적으로 사는 것이다. 거룩함보다는 외형적인 변형을 추구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이기적인 갈망을 분출한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분을 무시하거나 잊고 산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다"

돈에 대한 집착은 세속주의의 전형이다. 이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거머리처럼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며 외형적 번영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이상으로 자리매김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속고해 볼 만한 사실이 있다. 성경 인물들의 삶, 특히 왕들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공동된 진멸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무에 따라 그의 삶의 결이 달랐다는 점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왕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나 이상승배를 하며 하나님을 멀리한 왕들은 외세의 침략을 받거나 반역으로 난세를 보내야 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났으니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선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성경의 원리를 명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2023년 새해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육으로 행복한 부자 되기를 기원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역대상 29:12). yanghur@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with their names,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갈보라장로교회, 다민족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렐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새생명안인교회, 알칸사 제자들교회, 앵커리지열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은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타코마안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제임스 짐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월남전쟁 당시 미 해군 준장으로 지휘하다가 그만 베테공에게 포로로 잡혀 수용소에서 무려 8년간 모진 고통을 당했으나 살아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How Survival?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처음 고문당할 때 사를 밤낮으로 운동장 한가운데 세워 두는데 손을 뒤로 묶어서 무릎을 꿇게 하고 밭도 주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금만 눈을 감으면 감시자가 모진 구타를 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3일 밤낮 그렇게 운동장 한가운

데 꿇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죽을 수도 없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미군 포로들이 자기 옆을 줄지어 지나가면서 암호를 했습니다. 암호는 툭툭 투두투이었습니다. 발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툭툭 투두투 "May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 하라는 축복기도의 Sign입니다. "May God bless you" 그리듬으로 툭툭 투두투 이렇게 발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스톡데일 준장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감방에 홀로 갇혀 절망 속에 있을 때 옆방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툭툭 투두투 빗자루로 마당

을 쓸면서도 빗자루를 가지고 툭툭 투두투 서로 만나면 잠시 스치는 순간에도 눈으로 서로 링크하며 엄지손가락을 곁에 세우고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뜻을 말없이 신호로 보내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누군가와 통하고 있다는 느낌만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혼자 아니다. 내가 누군가와 통하고 있다. 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삶의 용기가 다시 솟아오르고 그래서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해도 "May God bless you" 하며 축복하는 Sign을 보내는 아름다

운 이웃이 되십시오. 엄지손가락을 곁에 세우고,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용기를 주는 이웃이 되십시오. 그러면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고독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신호가 옵니다. "May God bless you"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절망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에워싸이는 절박한 환경에 놓인다 해도 누군가 통하고 있다면 반드시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songkpk@hotmail.com

인/터/뷰

월드미션대 초고령시대 시니어복지목회 포럼 강사 이준우 교수

'노인사역'...교회가 앞장서서 펼쳐나가야 하고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 되어 할 때

"수발이라는 개념이 아닌 사회적 돌봄, 정서적 돌봄, 신체적 돌봄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예전처럼 노인들이 케어만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아닌 다음세대와 문화적 공유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시대 되어"

동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준우 교수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장애를 마치 불치병처럼 생각을 해왔지만 현재는 장애를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체장애는 사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 경우 하반신에 신경이 살아있다면 웨어러블 기계를 사용하여 생활할 수 있느냐고요"라고 설명한다.

이 교수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같은 정신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과학발전이 상당부분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사회가 노령화로 인해 노령 층에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인지영역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사역에 대하여 교회가 앞장서서 사역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교회에



이현아 교수와 이준우 교수

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사역이 주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육신적 관점에서 어르신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분들의 삶이 활기찬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즉 수발이라는 개념이 아닌 사회적 돌봄, 정서적 돌봄, 신체적 돌봄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초

고령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노인들이 케어만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아닌 다음세대와 문화적 공유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사역에 대해 제 개념을 화해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고 피력했다.

18일(수) 오후3시 유튜브와

Zoom으로 진행된 초고령시대 대비 시니어 복지목회포럼은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사회복지와 미래목회의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준우 교수는 '성육신적 시니어 복지목회의 방향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했으며 이상진 목사는 '치매 친화적 신앙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했다.

본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자 글로벌리더십 석사 복지선교 전공 디렉터 이현아 교수는 노령인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다며 월드미션대학교가 초고령시대에 대비한 리소스를 많이 개발하여 커뮤니티에 제공하고자 한다고 하며 한국에서 사회복지계열로 앞서가고 있는 강남대학교와 함께 다양한 사회복지 사역에 대한 강의를 개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우 교수는 "이미 월드미션대학교와 강남대학교가 사회복지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경험이 많은 강남대학교와 신학과 선교분야에 탁월한 월드미션대학교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는 사역과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미주사회 교회들 사회복지 기관들에 전문가들 인식이 확장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복지선교전공을 많이 해서 이 과정 통해 발돋움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아 교수는 "포럼을 계기로 지역 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학교로 되었으면 한다. 노인분들의 양적 수가 급증하는데 교회와 기관에서 대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Table with church listings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churches in the Northeast and Hawaii regions.

아시아·아프리카·남미 교회 성장, '세계 선교' 지형 바뀐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17일 정기총회 개최

아시아·아프리카·남미 교회가 성장하면서 서구 중심의 선교 시대가 저물고 있다.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세계 선교 지형이 바뀌면서 한국 선교계도 새로운 선교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17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33차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6월 13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엔코위)'를 열 예정이다.

4년마다 열리는 엔코위는 한국 선교계가 지향하는 선교 방향성을 점검하는 회의다. 2017년 7차 회의 이후 코로나로 5년 만에 열리게 됐다. 주최측은

선교사와 선교단체 관계자, 선교학자, 목회자 등 600여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강대흥 KWMA 사무총장은 "선교사들이 해외선교지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자본을 들여 선교하는, 이른바 서구 중심의 선교는 이제 막을 내렸다"며 "현지인들이 스스로 선교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엔코위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등 비서구권 나라들이 연합해 선교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엔코위는 '세계 기독교 시대의 한국선교에 대한 이해와 나아갈 길'이라는 방향 아래 '선교와 거룩' '한국선교와 세계 기독교' 등 네 가지 주제를 다

룬다. 참석자들은 '다음세대 선교 동원' '정보화 시대와 선교' '현직교회와의 협력' '여성선교사' '가정' 등 9가지 주제의 영역별 모임에서 세부 실천 과제를 평가하며 대안을 모색한다. 한철호 엔코위 프로그램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IT) 강국임에도 4차 산업시대 선교를 위한 조사와 아카이브(자료보관소) 시스템이 별로 없다"며 정보화 시대의 선교를 강조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KWMA 이사장 이규현 수령로교회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가 선교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다. KWMA가 새해를 맞아 사막에 길을 내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비상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도 힘들다는데... 상가교회 217명 열매 비결은

예성 '성결인의 전도대회' 서 1등

지난 성탄절, 경기도 성남 빛나는교회(서학복 목사)는 '빛나는 축제'를 열었다. 성도들로 구성된 30여팀이 찬양 율동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기도 했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자리이기도 했다. 빛나는교회 성도들이 전도한 새신자들이 함께 무대에 섰기 때문이다. 공연에 참여한 새 신자와 그를 보러온

가족까지 교회는 시끌벅적했다. 빛나는교회 성도들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도한 숫자는 무려 217명이다. 대략 매일 2명 이상 복음의 열매를 맺은 셈이다.

빛나는교회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총회장 신현과 목사)가 16일 서울 종로구 총회회관에서 개최한 '성결인의 전도대회 시상식'에서 1등을 차지했다. 예성은 지난해 10월부

터 3개월간 '성결인의 전도대회'를 열고 산하 교회에 전도사역을 독려했다.

빛나는교회는 상가교회지만 대형교회 이상으로 모든 열정을 전도에 쏟아붓고 있다. 통상 교회가 1년에 한 차례 하기도 힘든 전도대회를 세 차례씩 진행한 지 10년이 넘었다. 서학복목사는 "성도들은 1차 때 전도에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2차, 3차,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며 "모든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전도대상을 교회까지 데려오도록 지속해서 코칭하는데, 이때 강조하는 것이 전도 대상자를 향한 관심이다. 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전도 대상자의 특징과 성격, 환경 등을 잘 관찰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과 도움을 주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전도가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의지가 있다면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최초 OTT플랫폼 서비스 'CTS JOYGO(조이고)' 오픈

총 8만여편 이상 국내 목회자의 설교 보유, 기독교 콘텐츠 제공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지난 1일부터 뉴스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 종교 미디어로는 최초로 기독교 OTT 플랫폼 서비스 'CTS JOYGO'를

오픈했다. 'CTS JOYGO'는 CTS기독교TV에서 27년 동안 방영된 약 30만편의 설교, 프로그램, 뉴스 등의 콘텐츠를 서비스한다.



소외된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 발달, '일곱 빛깔' 선율의 기적

기아대책-GS리테일 문화소외계층 돕는 '무지개상자' 성과 발표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서울 강남구 GS 강남타워 세미

나홀에서 아동문화정서 지원사업 '무지개상자' 성과발표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근대가 이렇게 우리 곁으로 왔네요."

현직 역사교사 15명과 기독교 문화유산 탐방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이 16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전국 각지의 중·고등학교 현직 역사교사 15명과 함께 기독교 문화유산 탐방에 나섰다.

'우리에게 근대 문화는 어떻게 왔을까'를 주제로 진행되는 문화유산 탐방은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출발해 정동교회와 경기도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박물관,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원, 대구 근대문화 유적지 청라언덕 등을 답사한다.

새문안교회에서 이들 교사를 만난 이영훈 대표회장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는 기독교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로 교육과 의료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교회가 교권·물질주의 속에서 지도력을 잃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기독교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재부흥의 길을 찾으려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답사에 참여한 흥상의 과천문원중학교 교사는 "역사 교사로서 일제강점기를 지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는데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번 답사로 그 현장을 보게 됐다"면서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JOYGO'는 총 8만여편 이상 국내 목회자의 설교를 보유하고 있다. 성경별 검색은 물론 절기, 주제, 인물 등의 설교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을 갖췄다.

또한 '제자 육한흠' 프리미엄 다큐와 국내의 기독교 명작 영화, 웹 드라마 등 유익한 기독교 콘텐츠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매주 다양한 테마를 구성해 이용자들에게 맞춤 콘텐츠를 추천한다.

'JOYGO' 콘텐츠 담당자는 "비대면이 일상이 된 지금 CTS 기독교TV에서 제작하고 엄선해 제공하는 JOYGO의 콘텐츠가 미디어 선교와 복음 전파, 신앙 성장의 좋은 도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지개상자 프로젝트는 기아대책이 2005년부터 GS리테일의 후원을 받아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 활동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음악을 활용한 정서적 공감대 형성과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8년 동안 711개소 1만2527명의 아동이 참여했다. 현재는 전국 23개소 2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열린 성과발표회는 '무지개상자' 사업을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하고 사업 전개 이후 측정된 사회적 임팩트를 공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발표는 사업 효과성 연구를 담당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상미 교수 연구팀이 진행했다.

연구팀은 "무지개상자" 사업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자 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력, 자아회복탄력성 증진과 함께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모임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온라인 음악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 및 문화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발표 이후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무지개상자 오케스트라'의 대면 연주회도 진행됐다. 현장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GS리테일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무대를 함께 관람했다.

Ministry Management Leadership 목회 경영 리더십 대학원

2023년 봄 학기 - 개강 2023년 2월 6일

모집과정

- MBA - Ministry Management Leadership
- Doctor of Leadership : Ministry/ Mission Leadership
- Ph.D. in Organizational Ministry Leadership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636) 327-4645. usa@midwest.edu
www.midwest.edu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공부한다



영성과 상담코칭 박사과정 신설

학위과정별 전공

- 준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 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찬양과 예배 전공),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 석사과정 |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찬양과 예배, 글로벌리더십(복지선교, 코칭 전공)
- 박사과정 | 목회학(DMin), 음악학(DMA), 상담코칭과 영성형성(DMin), 영성과 상담코칭(PhD)
- 수료과정 | 유아교육, 가정상담, 비영리단체 사역



홈페이지 QR

World Mission University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 wmuinfo@wmu.edu | www.wmu.edu